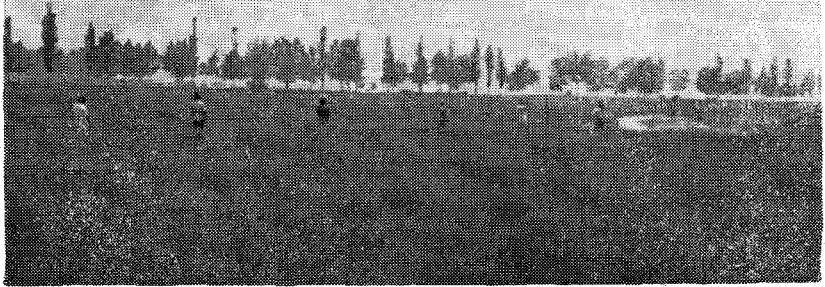


7월의 농가 메모



□ 벼 농 사

◇ 늦모내기

① 논앞그루로 원예작물을 재배하였거나 가뭄등으로 부득이 7월중에 늦모를 낼 경우에는 자연 벼가 자라는 기간이 짧게 되므로 한포기당 묘수를 많이 하여 배게 심는다.

② 한포기당 묘수는 5본이상잡고 한평당 포기수는 1백포기이상 배게 심도록 한다.

③ 모가 부족할때는 한 포기당 묘수를 줄이고 배게 심는 소주밀식(小株密植)을 하고 모가 우자라서 키가

클때는 벼잎끝의 1/3정도를 잘라 심는다.

④ 질소질 거름은 적기에 모를 낼 때보다 20~30% 정도 감량하여 주도록 하면 생육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밀거름 중점으로 주어야 하며 새끼칠 거름은 약하고 새끼칠 거름량을 밀거름에 포함 시용하여야 한다.

⑤ 늦모내기를 하면 도열병을 비롯하여 각종 병해충에 약하게 되니 예방위주로 방제에 유의한다. 특히 벼잎끝을 절단하여 모내기를 한 논은 더욱 방제에 유의한다.

◇ 물관리

① 헛새끼치는 시기 즉 이삭패기

전 45~35일전에 논물을 1주일정도 빼어주어 토양중에서 유기물이 이상 분해하여 벼뿌리에 해로운 유화수소 등 유해가스를 발산시키고 산소를 공급시켜주어 벼뿌리의 활력을 도와 주어야 한다.

② 중간물떼기는 지력이 양호한 논, 비료를 많이 준 논, 배수가 불량한 논에 효과가 크고 지력이 불량한 모래 논등에는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 한다.

③ 어린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는 4~5일간 물을 대고 1~2일간은 물을 빼는 물 걸러대기를 실시한다.

④ 이 시기부터는 벼 뿌리가 늙어 가기 시작하여 토양중 산소의 요구도가 높아지게 된다. 또 벼 일생중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시기에 해당되므로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완전 낙수기까지 물 걸러 대기를 실시해야 한다.

◇ 이삭거름주기

① 거름주는 양은 신품종은 10a 당 요소 5~6kg과 염화加里 4~6kg을 주며 재래품종은 요소와 염화加里를 각각 3~4kg 혼합하여 논전면에 고루게 뿌려준다.

② 거름주는 시기는 신품종의 경우는 3.3m²당 유효경수 1천개 이상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이삭당 벼알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삭패

기전 15일경에 준다.

반면 1천개 이하일 때는 한이삭당 벼알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삭패기 24일경에 주는 것이 좋다.

③ 재래종은 한 이삭당 벼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삭패기 24일경에 주어야 한다.

④ 이삭거름 줄 시기에 벼잎이 짙은 녹색을 띠우면 주지 말아야하며 기상조건(저온, 일조부족등)이 불량하면 주지 말아야하며 줄때도 시기와 비료량을 정확히 맞추어 주어야 한다.

◇ 재해대책

① 이달은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며 특히 흰빛잎마름병, 잎집무늬마름병, 도열병과 밀주류, 벼잎벌레가 발생이 심하게 되니 자주 포장을 살펴보고 예찰정보에 귀를 기울여 사전방제도록 한다.

② 이달은 또한 장마철에 해당되므로 침수될 때는 속히 배수하되 완전배수가 곤란할 때는 양수기를 동원하여 최소한 벼잎의 끝만이라도 노출시켜야 한다.

□ 발농사

◇ 콩밭 복주기

① 복주기는 흙의 물기를 유지시키고 뿌리의 발달을 촉진해주며 쓰

◇ 7월의 농가메모 ◇

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잡초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.

② 복주는 시기는 품종, 파종시기, 제초제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보편적으로 제1차 복주기는 콩파종 52~30일후 경에 떡잎마디까지 복을 주고, 제2차 복주기는 제1차 복주기 후 7~10일경에 흠일마디까지 복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. 제3차 복주기는 제2차 복주기후 7~10일경에 제1본엽까지 실시한다.

③ 제초제를 뿌렸을 때는 파종후 40~45일경에 한번만 복주기를 하여 준다. 보리 뒷그루로 심은 콩이라도 복주기는 하되 늦어도 7월말까지는 끝내야한다.

◇ 콩 순지르기

① 일찍 심은 콩이거나 보리 뒷그루로 재배한 콩이라도 토양이 비옥하거나 비료를 많이 주어 재배할 경우 과도한 생장으로 햇볕을 받아드리는 상태가 나쁘거나 공기가 잘 통하지 못하여 웃자랄 염려가 있을때 순지르기를 하면 쓰러짐을 막아주고 콩의 분지(分枝)수를 많게 하고 마디수를 증가시켜 콩꽃 및 꼬투리가 많아져 수량이 증대된다.

② 순지르기를 하는 방법은 재식 밀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재배인 경우 즉 골사이 60cm, 포기사이 30cm에 1주당 2본으로 심었을 경우 본잎

이 5배~7배 일때 본잎 5매를 남기고 생장점을 손으로 집어주면 된다.

◇ 고구마밭 중경배토

① 중경배토 작업의 목적은 싹을 심은 후 이랑표면에 생긴 딱딱하게 굳은 흙을 부수어 통기를 좋게 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며 빗물이 잘 스며들게해 새로운 뿌리발생을 좋게 하고 양분의 흡수를 돕는데 있다.

② 작업을 하는 시기는 고구마 덩굴이 땅표면을 덮기이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. 작업회수는 잡초발생상태를 보아 1~2회 정도가 알맞다.

◇ 고구마밭 김매기

① 고구마 밭에 김매기를 얹하여 주면 수량은 김을 매어준 포장에 비하여 40~50%정도가 감소된다.

②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김매기는 싹을 심은 후 25~3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잡초에 의한 수량감소가 적다.

◇ 고구마 덩굴뒤집기

① 덩굴뒤집기는 줄기에서 뿌리가 돌아 잔 고구마가 무수히 생기는 경우 이것을 방지하고 지상부의 생육이 너무 좋은 경우 생육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덩굴뒤집기를 실시하면 고구마에 해롭기만 할뿐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다.